

사회

유치원 구타장면 CCTV 무단 삭제

기록 보관 강제 규정 없어 은폐·조작 맘대로... 관리 강화 시급

광주서 폭행 영상 삭제한 이사장 송방망이 처벌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행 사건 또는 안전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의사표현력이 떨어진 유아(7세 이하)의 인권 보호와 객관적인 현장 보존 자료를 위해서는 CC(폐쇄회로)TV의 운영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삭제·보관에 관한 권한이 시설장에게 일임돼 있어 시설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이를 은폐 또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등의 CCTV는 설치를 의무로 하되, 그 기록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모(46)씨는 결혼 12년 만에 시험

관 시설을 통해 얻은 딸(4)과 얘기를 나누던 중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박씨는 딸이 다니고 있던 광주 시 서구 쌍촌동 모 유치원을 찾아가 담임교사 안모(여·29)씨, 유치원 이사장 양모(54)씨와 함께 영상을 확인 하다가 치를 떨었다.

30분 분량의 영상 속에 유치원 교사 안씨가 딸의 뺨·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영상 속에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아이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박씨는 이날 사과를 받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유치원을 강요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모(46)씨는 결혼 12년 만에 시험

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부인했다.

박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 개월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간신히 1분 분량의 영상만을 복원했다. 박씨는 딸이 최소 6개월 이상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법기관은 폭행 내용을 복원된 영상만큼만 적용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복원된 영상을 근거로 안 교사에게 박씨의 딸을 폭행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양이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 등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 대표가 CCTV 영상을 임의대로 삭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특히 폭행이 있어도 유아의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학부모(여·36)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선택시 CCTV 설치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지만 형사 사건과 관련해 시설 관계자가 관련 기록을 지울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의사 표현력이 떨어진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쇄회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철없는 중3 아들

사람 만들려 어머니가 "구속시켜 달라" 모정 외면 또 남의 차 훔쳐 타고 등교

하느님이든 아들들 사람 만들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구속시켜 달라"고 신고한 어머니의 간절한 모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2일 훔친 차를 이용, 편의점에서 흥미를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송모(16·중3)군과 유모(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군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29일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랜저 TG 승용차를 훔쳐 전소 6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연료를 넣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인 이들은 시속 180km의 속도를 내며 광주 시내를 무법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날 18일 새벽 광주 서구 관천동에서 그랜저 TG 승용차를 훔

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송군 어머니의 신고로 같은 달 28일 관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송군은 바로 다음날 또 다시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군은 이날 오전 훔친 차를 타고 태연히 학교에 등교, 수업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군은 차량 털이, 절도 등 전과 5범으로 고흥정보산업학교에서 구호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범행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 "군것질하고 PC방, 노래방 갈 돈이 필요해서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들을 바로 잡으려던 어머니의 모정을 안다면 재범만은 하지 않아야 했는데, 이번에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15) 김장두



광주가정법원 개원식

광주가정법원이 지난 2일 오전 광주교법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에서 신청사 건립이 진행중이어서 현재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 종합청사 3층 기존 가정지원에서 개원했다. 법원은 지난달 정기간사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 1명을 충원했고 전문조사관도 지난해 하반기 1명을 늘렸다.

이에 따라 광주가정법원은 법관 5명, 전문법관 1명, 총 조사관 5명, 전문조사관 4명 등이 배치됐으며, 목표 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도 신설될 예정이다.

광주가정법원은 1947년 1월 광주지법 소년심리원으로 출발, 2001년 3월 가정지원으로 확대 운영됐으며 이번에 대전, 대구와 함께 승격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자화장실 엿본 치한 무슨 죄?

신체접촉·촬영없어 '성추행' 대신 '건조물 침입'

4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엿 본 채 여성을 훔쳐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정모(43)씨는 4일 새벽 0시1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정씨는 화장실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유모(여·29)씨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유씨는 칸막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정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이었다. 현행범에서는 단순히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소리만 듣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성폭속에 관한 죄(공역음란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

거나 추업(勸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강제 접촉이 없어 강제추행 혐의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 폭속에 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성희롱도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단순히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응무중인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성의 날' 거리행진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여성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시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초중고 '토요교실' 출발부터 삐걱

1학년 신입생 참여 미미

"스포츠 프로그램이 더 많다면 좋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3월 3일 광주 북부초등학교, 학교가 마련한 토요교실에 참가한 학생 수미미가 축구, 농구 시합을 하면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또 다른 교실에서 열린 '봉주 창의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나무공예, 멀티미디어 창작, 페이퍼 공예, '춤 놀자' 등 모두 13개 프로그램에서 80여 명의 학생이 토요일 공부의 부담을 벗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 초·중·고교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등 토요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1학년 신입생이 제외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신입생 입학식이 토요일 시행 전 날인 2일이었던 탓에 1학년들이 곧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심지어 지난해 주5일 수업제 시범 학교였던 봉주초등학교도 신입생의 프로그램 참여를 일단 제외했다.

봉주초등학교 관계자는 "시범 학교여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었지만, 1학년 신입생의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중·고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에 대부분 초등학교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토요일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상습 차탈이 10대 들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4일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상습 차탈이 행각을 벌인 A(16)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달 오전 3시30분께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인근에서 주차된 이모(41)씨의 산타페 승용차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지난 29일까지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녀자 상대 강도짓

광주서부경찰은 4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2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13분 광주시 서구 내방동 모 원룸 침실공사장 앞에서 이모(여·49)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만6000원을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만취 여대생 택시비 문제로 행패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요금 문제로 할아버지뻘되는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경찰서 행.

○4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학생인 오모(19)양은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택시기사 임모(63)씨의 택시를 잡는 등 폭력적인 광산구 모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파출소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공무원들을 방해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술에 취한 오양은 택시비가 평소보다 1000원정도 더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렸다"며 "아무리 그래도 나이트 어트리의 택시를 잡고 욕을 해야겠느냐"라고 호통.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4월 2일